

# VIP REPORT



## ■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b>Executive Summary</b> .....	<b>i</b>
<b>1. 민간 건축 경기 동향</b> .....	<b>1</b>
<b>2.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원인</b> .....	<b>4</b>
<b>3.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문제점</b> .....	<b>6</b>
<b>4. 대응 방안</b> .....	<b>11</b>
<b>【별첨 1】 건축업의 산업연관효과</b> .....	<b>14</b>
<b>【별첨 2】 건축 경기 침체의 부문별 파급 영향 추산 방법</b> .....	<b>17</b>
<b>【별첨 3】 주요 산업연관계수표</b> .....	<b>19</b>
<b>■ HRI 경제 지표</b> .....	<b>21</b>

## 1. 민간 건축 경기 동향

최근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는 정부의 토목건설 발주 확대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 경기의 현황을 나타내주는 건설기성액 증감률로 건설 경기를 살펴보면 전체 건설기성액증감률은 2007년 6.6%에서 2008년 4.7%, 2009년 1~9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4%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중 토목건설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건설 경기는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토목부문의 건설기성액은 2009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건축부문의 건설기성액은 같은 기간 5.2%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축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부문(주거용 건축건설) 건설기성액은 같은 기간 9.5%나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8년 주거용 건축 부문의 명목 건설기성액 증감률이 연평균 8%를 상회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건축건설 경기를 예고해 주는 건축부문 건설수주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건설업중 토목부문 건설수주액은 2009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67.9% 증가한 반면, 건축부문 건설수주액은 같은 기간 33.6%의 감소하였다. 특히 주택부문 건설수주액의 경우 31.4%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주택부문 건설수주액은 1.6% 감소에 그친 반면 민간주택부문 건설수주액은 36.9%나 감소하였다.

## 2.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원인

주택 경기 침체는 첫째,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 시장에 과잉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던 2001~2006년 이전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0만호를 하회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국의 미분양주택수는 2008년말 16만 6,000호에 이르렀으며 2009년 9월 현재에도 약 12만 6,000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 문제는 민간·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9년 9월 현재 민간 주택 미분양수는 전체 미분양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 미분양수가 2.1만호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수가 10.5만호에 달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가계 유동성 제약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DTI, 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중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분기에 69.9%에서 2008년 4/4분기에 65.6%로 지속 하락한 바 있다.

셋째, 서브프라임발 실물 경제의 침체에 따른 가계의 소득 여건 악화도 시장 수요 위축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감률은 2008년 3/4분기에 1.5%에서 2008년 4/4분기에 -0.7%의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09년 1/4분기 이후 3/4분기까지 -3% 내외 수준의 감소율 지속중이다.

### 3.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문제점

주택 부문 중심의 민간 건축 경기 침체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건축업 자체의 생산 침체가 경제 성장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중 건축업 생산의 명목 GDP 비중은 3.6%이다(상반기 토목업의 대 GDP 비중은 2.4%). 그러나 상반기중 건축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GDP 감소분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12.6%에 달하고 있다(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Delta 3.2\%$ 중 약  $\Delta 0.3\%p$ ). 따라서 최근과 같은 건축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건축업이 향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건축업의 타산업에 미치는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로 민간 건축 부문의 리스크가 경제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 건축업은 타산업에 적지 않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진다. 2007년 산업연관표상 건축업이 타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한 단위당 0.334단위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중  $\Delta 0.2\%p$ 가 건축업에 의한 간접적인 성장 감소효과로 계산될 수 있다. 즉 건축업 침체는 건축업뿐만 아니라 건축업의 후방 산업인 철강, 유화, 시멘트, 기계 등의 산업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

셋째, 건축업의 높은 취업유발효과로 건축 경기 침체가 경제의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건축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당 17.1명에 이른다. 이중 11.1명이 건축업 자체의 취업유발효과이며 타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도 6.0명이나 된다. 다시 말해 2009년 상반기중 건축업 내에서 연인원 약 3만 3,000명의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으며, 타 산업에 대해서는 연인원 약 1만 7,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상반기 건축 경기 침체로부터 유발된 직·간접적인 고용 감소는 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건축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은 미래 주택시장 버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신주택보급률 통계상 최근 4년간 가구 증가분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해마다 약 60만 호의 신규 가구가 발생한다. 특히 서울은 해마다 약 9만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최근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8년부터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7년 55.6만호에서 2008년에 37.1만호로 급감한 이후 2009년 1~10월까지의 기간에는 약 20.2만 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7년에 6.3만 호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4.8만 호, 2009년 1~10월에는 1.6만 호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은 향후 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를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 버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4. 대응 방안

**첫째,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축 부문 경기 침체를 보완해야 한다.** 민간 건축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SOC 투자 확대의 결과이다. 따라서 2010년에도 건설업 경기의 침체를 막고 우량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SOC 투자 확대는 친환경 도로 건설 확대, 저탄소 배출 물류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이 '지식 기반 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되어, 경제의 효율성 제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촉진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건설사들 스스로의 미분양 주택 해소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분양 해소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건설사들의 공공 주택 수주, 택지 불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사옥의 지방 이전이 계획된 공공 기관이나 기업들의 임직원 주거 수요를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축 경기 침체 리스크가 타 산업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축 시장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건설사들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건설업이 가지는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업의 리스크가 후방 산업에 확산될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자재 및 기계를 생산하는 후방 산업(철강, 유화, 시멘트, 기계 등)에 대한 업황과 유동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미래 수도권 주택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모자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건축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2~3년 뒤 수도권 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 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 부문 주택 사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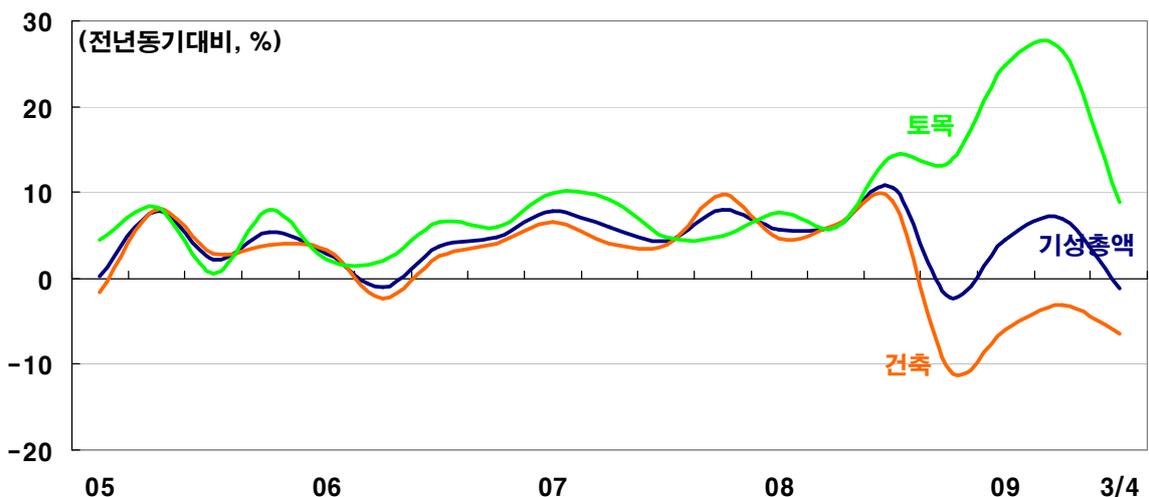
**다섯째, 건축업의 신성장동력화·녹색산업화를 위해 친환경·고에너지효율 건축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건설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황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축물과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서 녹색 시대에 부합되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러한 건축업의 신성장동력화·녹색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고에너지효율 건축물 공사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산학연 관련 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구축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민간 건축 경기 동향

### ○ 전체 건축 경기 동향

- 2009년 건축 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침체를 나타냄
  - 건축 경기 동향을 나타내주는 건축 부문 건설기성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연간 기준으로 1999년 4.1%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5.2%의 감소세를 기록함
  - 특히 2005년 이후 분기별 건축 부문 건설기성액 증감률은 2006 2/4분기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4/4분기 이후 2009년 3/4분기까지 4분기 동안 감소세를 지속중
  
- 반면 토목 부문 건설기성액의 경우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토목 부문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대폭적인 SOC 투자 증액의 영향으로 2009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함
  - 토목 부문 건설기성액이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때는 2003년으로 연간 증가율은 13.6%를 기록한 바 있음

< 건설기성 부문별 분기별증감률 추이 >



자료: 통계청 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공종별 건설기성액.

○ 건축 부문별 경기 동향

- 최근 월별 건축공사 건설기성액은 7월에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11.9% 감소하였으나 9월에 들어 1.2%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함
- 부문별로는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 건축 경기가 침체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냄
  - 건축공사중 주거용 부문의 월별 건설기성액은 2009년에 들어 전년동월대비 감소율을 지속함
  - 다만 9월 주거용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에 그치는 모습을 나타냄
  - 참고로 2009년 1~9월중 경상 건설기성액 기준으로 건축공사중 주거용 부문이 63%, 비주거용 부문이 3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1~9월중 경상 건설기성총액에서 토목 부문이 40%, 건축 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기성 공종별 월별증감률(전년동월비, %) 추이 >

공종별	'0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성총액	△0.4	12.0	3.0	6.0	△0.7	15.2	△2.3	△7.9	6.0
건축공사	<b>△13.0</b>	<b>△0.3</b>	<b>△4.5</b>	<b>△4.4</b>	<b>△6.8</b>	<b>1.6</b>	<b>△9.3</b>	<b>△11.9</b>	<b>1.2</b>
주거용	<b>△18.7</b>	<b>△6.2</b>	<b>△10.3</b>	<b>△8.8</b>	<b>△10.2</b>	<b>△1.9</b>	<b>△14.9</b>	<b>△15.4</b>	<b>△1.2</b>
비주거용	<b>△2.5</b>	<b>10.6</b>	<b>6.9</b>	<b>4.7</b>	<b>0.2</b>	<b>8.7</b>	<b>2.4</b>	<b>△5.1</b>	<b>5.9</b>
토목공사	23.1	36.1	17.3	27.1	11.0	40.9	12.8	△1.0	14.6
일반토목	34.4	38.2	13.2	18.0	11.5	40.2	9.9	7.8	12.0
전기기계	△20.1	△10.5	△18.6	13.8	0.1	50.8	30.2	44.2	48.2
플랜트	10.9	43.2	37.0	59.1	11.5	42.0	17.7	△22.3	15.3
조경공사	△20.6	△33.3	△60.4	△19.5	△1.8	36.6	15.0	△10.4	58.9
기타공사	△57.8	△76.4	△52.1	△77.3	△71.4	80.1	37.0	244.4	92.4

자료: 통계청 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공종별 건설기성액.

○ 건축 수주로 살펴 본 건축 경기 전망

- 2009년 1~9월중 건축 부문 수주는 30.0조원으로 전년동기(2008년 1~9월)대비 33.6% 감소함
- 건축 부문중 주택 부문의 경우 2009년 1~9월중 19.3조원의 수주에 그쳐 31.4%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건축 수주 침체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 침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9월중 건축·공공 부문 수주액은 8.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데에 그침
  - 반면 2009년 1~9월중 건축·민간 부문 수주액은 2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6%나 감소함

< 공종별·발주자별 건설수주액 및 증감률(전년동기대비) 추이 >  
(단위 : 조 원, %)

		경상금액(조원)			증감률(%)		
		2007	2008	2009 1~9	2007	2008	2009 1~9
수주총액	계	112.5	102.3	61.7	23.6	△9.0	△3.8
	건축	82.3	68.0	30.0	18.5	△17.4	△33.6
	주택	58.4	43.4	19.3	10.7	△25.7	△31.4
	토목	30.0	34.2	31.6	40.3	13.9	67.9
공공	계	28.7	31.3	34.6	40.3	9.1	90.7
	건축	12.4	14.2	8.3	58.6	13.8	△1.6
	주택	7.2	9.2	4.8	44.8	28.0	△12.4
	토목	16.2	17.1	26.3	28.9	5.6	172.7
민간	계	77.6	65.3	24.9	16.5	△15.8	△42.2
	건축	68.5	51.6	21.0	12.6	△24.6	△40.6
	주택	51.0	33.9	14.2	6.8	△33.5	△36.9
	토목	9.0	13.6	3.9	58.6	51.3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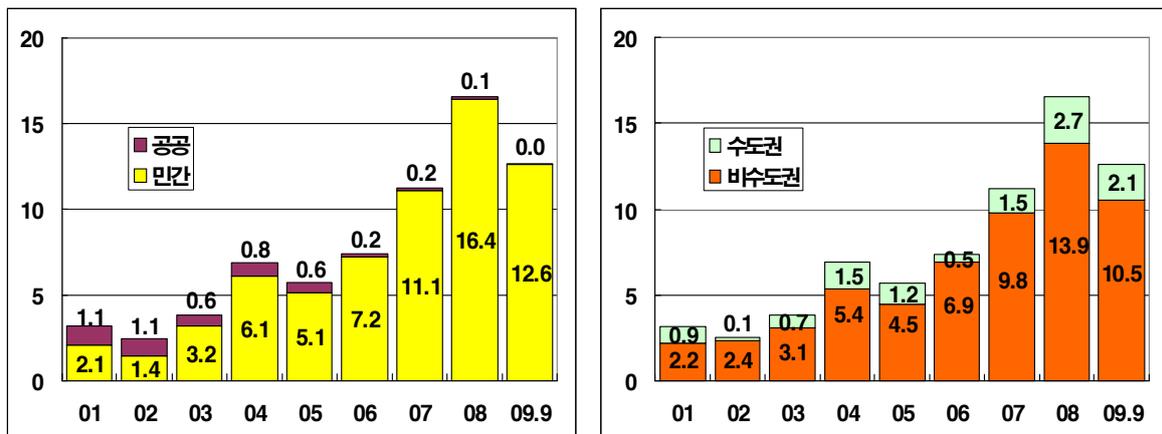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공종별·발주자별 건설수주액.

## 2.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원인

### ○ (시장 공급)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시장 미분양 문제

- 2008년 이후 미분양 주택이 크게 급증하며 주택시장에 초과 공급을 유발함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던 2001~2006년 이전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0만호를 하회
  -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2008년말에는 16만 6,000호에 이름
  - 2009년 9월 현재 주택 미분양수는 약 12만 6,000호로 2008년말 대비 4만호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만호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미분양 주택 문제는 민간·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냄
  - 2009년 9월 현재 민간 주택 미분양수는 전체 미분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 9월 현재 수도권 주택 미분양수가 2.1만호,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수가 10.5만호에 달하고 있음

< 부문별·지역별 주택 미분양 추이(만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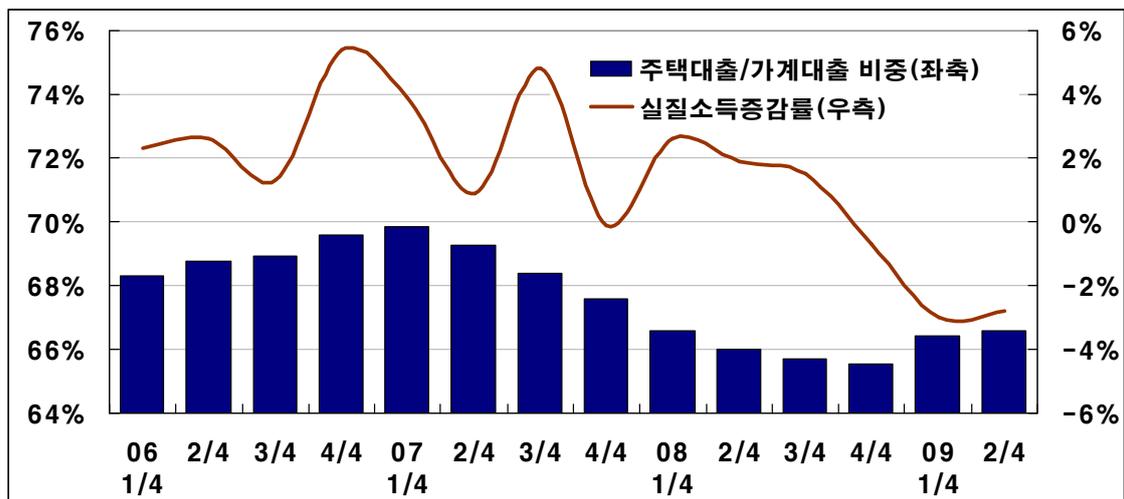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주택미분양 주택 현황.  
 주: 2007년 이전은 해당 연도의 12월말 기준.

○ (시장 수요)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과 실물 경제 침체에 따른 구매력 위축

- DTI, LTV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억제 정책으로 주택 시장 수요가 위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중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분기에 69.9%에서 2008년 4/4분기에 65.6%로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2009년 1/4분기에 66.4%, 2/4분기에 66.6%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발 실물 경제의 침체로 가계의 주택 구매력과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에도 영향이 있음
  - 가계의 실질소득 증감률은 2008년 3/4분기에 1.5%에서 2008년 4/4분기에 -0.7%의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09년 1/4분기 이후 3/4분기까지 -3% 내외 수준의 감소율 지속중임

< 예금은행 주택대출/가계대출 비중 및 실질소득 증감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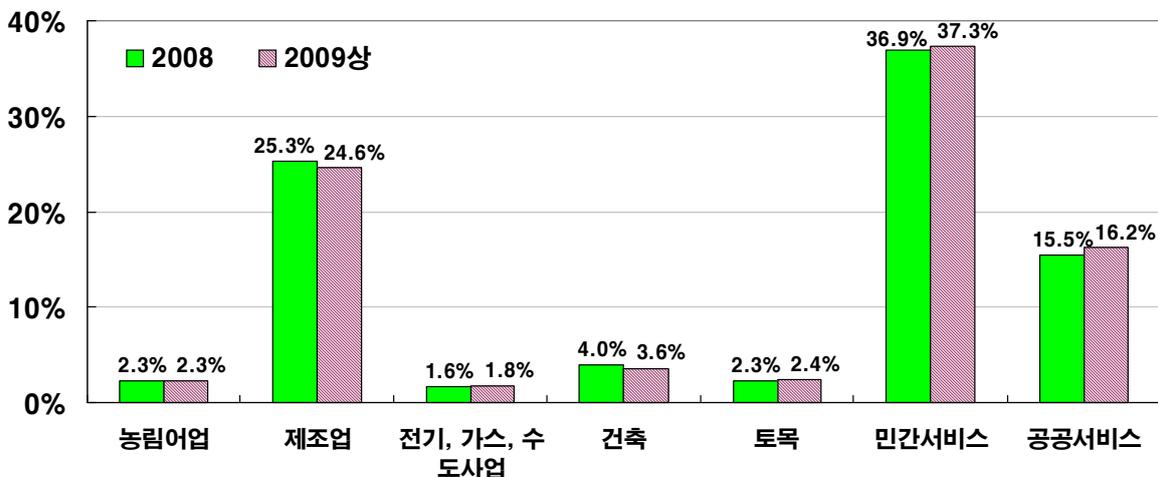
- 주: 1) 주택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대출 및 주택관련 집단대출중 주택담보분 포함)과 주택관련 집단대출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합
- 2) 실질소득증감률은 신분류, 전국, 2인이상 기준.

### 3. 민간 건축 경기 침체의 문제점

#### ○ 경제 성장력 약화의 원인

- 2008년 기준 건축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명목 GDP의 4.0%를 기록함
  - 이는 제조업중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업 (4.3%), 운송장비 제조업(자동차와 조선 포함, 4.2%)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수 및 보관업(3.9%)과 비슷한 수준임
  - 2009년 상반기중에는 건축업 생산의 명목 GDP 비중이 3.6%로 하락한 반면, 토목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정책의 영향을 받아 2.4%로 소폭 상승

< 국민계정 주요 산업별 비중(명목 GDP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건축 부문은 통합주거용건물건설, 비주거용건물건설, 건물수선을 포함함.

2) 공공서비스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로 자체 정의함

3) 민간서비스 산업은 공공서비스 산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함.

- 직접적 성장률 감소 효과: 건축업의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는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Delta 3.2\%$  중  $\Delta 0.3\%p$  (기여율로는 실질 GDP 감소분의 12.6%를 차지함)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기여도(원자료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농림수산·광업	0.15%p	0.17%p	0.01%p
제조업	2.24%p	△0.55%p	△2.74%p
전기·수도·가스업	0.13%p	0.07%p	0.14%p
건설업	△0.03%p	△0.27%p	0.08%p
건축업	△0.04%p	△0.41%p	△0.31%p
토목업	0.01%p	0.14%p	0.39%p
서비스업	2.06%p	0.63%p	△0.01%p
경제성장률	4.9%	△0.3%	△3.2%

자료: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 주: 1) 산업별 기여도의 합과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정상 순생산물세의 차이때문임  
 2) 건축업은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건물수선을 합한 것임.

○ 민간 건축 부문에서 타산업으로의 리스크 확산<sup>1)</sup>

- 2007년 산업연관표상 건축업이 타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당 0.334단위에 달하고 있음
- 간접적 성장률 감소 효과: 2007년 산업연관분석의 건축업의 자기 산업 부가가치계수와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계수를 이용할 경우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3.2%중 △0.2%p가 건축업의 간접적인 성장 감소효과로 판단됨
  - 단 건축업이 타산업 생산으로부터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없는 최종재 산업이라고 가정함
  - 건축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0.785 가운데 0.451 정도만이 건축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이고, 이를 뺀 0.334가 다른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임
  - 즉 건축업 침체는 건축업뿐만 아니라 건축업의 후방 산업인 철강, 유화, 시멘트, 기계 등의 산업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함

1) 자세한 추산 방법은 『【별첨 2】 건축 경기 침체의 부문별 파급 영향 추산 방법』을 참조

- 직·간접 성장률 감소효과: 이에 따라 건축업은 2009년 상반기 성장률  $\Delta 3.2\%$  중  $\Delta 0.5\%p$ 에 대하여 직·간접적 기여를 함 (기여율로는 GDP 감소분의 16.9%)
  - 직접 성장률 감소 효과( $\Delta 0.3\%p$ ) + 간접 성장률 감소 효과( $\Delta 0.2\%p$ )

○ 고용 상황 악화

-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건축업의 연인원(man-year) 취업자수<sup>2)</sup>는 약 117.5만 명으로 전산업 취업자 1,878.4만 명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건축업의 취업자수가 건설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고 있으며, 토목 부문 취업자수는 30% 수준에 불과
  - 한편 건축 부문의 취업자수 비중은 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 77 부문중에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농산물 7.1%), 도소매(6.3%), 음식·숙박(8.0%), 교육서비스(6.9%)에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참고로 제조업중 금속제품 (32.1만 명, 1.7%), 자동차 산업(29.1만 명, 1.6%), 전자기기 및 부품(25.7만 명, 1.4%) 등의 순서로 높은 취업자수를 기록함

< 2007년 산업연관표 상 취업자수 및 비중 >

산 업	취업자수(명)	전산업 대비 비중
농림수산업	1,748,758	9.3%
제조업	3,332,957	17.7%
전력·수도·가스	72,238	0.4%
건설업	1,691,112	9.0%
건축	1,175,703	6.3%
토목	515,409	2.7%
민간 서비스	9,064,440	48.3%
공공 서비스	2,856,902	15.2%
전산업	18,783,521	100.0%

자료: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부속표상 통합중분류 고용표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공공서비스 산업은 통합중분류 코드 0069~0073으로 자체 정의함

2) 민간서비스 산업은 통합중분류 코드 0057~0068, 0074~0077로 정의함.

2) 연인원 취업자수의 개념은 본문중 【참고】 한은 산업연관표 고용표와 통계청 고용통계의 차이를 참조.

- 직접적 고용 감소 효과: 2009년 상반기중 건축업 내 3만 3,000명의 취업자수 감소 추정
  - 참고로 통계청 기준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2008년 10월 183.3만 명에서 2009년 10월 168.6만 명으로 14.7만 명이 감소함
  
- 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 2009년 상반기 건축업 침체로 유발된 경제 전체의 취업자수 감소분은 연인원 1만 7,000명에 해당됨
  
- 직·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 2009년 상반기 건축업 침체로 유발된 경제 전체의 취업자수 감소분은 연인원 5만 명에 해당됨

**【참고】 한은 산업연관표 고용표와 통계청 고용통계의 차이<sup>3)</sup>**

○ 한은 산업연관표 고용표상의 취업자

- 연인원(man-year)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체계에 맞추어 산업부문별 노동 투입량과 최종수요에 의하여 유발되는 노동량을 추계함
- 연인원(man-year)이란 사업체 조업기간 및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투입 노동량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
  - 예를 들면 6개월만 조업한 사업체의 근로자 1명과 1년 동안 계속 조업한 사업체에서 6개월만 근무한 근로자 1명은 각각 연간 기준인원으로는 0.5명으로 환산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 매월 15일이 포함된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를 의미함
- 또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월평균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작성

○ 미래 주택 시장의 초과수요 유발

- 대략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신주택보급률<sup>4)</sup> 통계상 가구수를 고려할 때 연간 약 6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가구수는 최근 4년 동안 (2005~2008년) 연평균 약 61.4만 가구가 증가
  - 이중 수도권은 33.1만 가구(서울 9.1만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28.3만 가구가 증가함

< 신주택보급률 통계상의 가구수(만호) >

		2005	2006	2007	2008
전국 (증감)		3,151.0 (-)	3,208.3 (57.3)	3,265.9 (57.6)	3,335.2 (69.3)
	수도권 (증감)	1,462.7 (-)	1,493.0 (30.3)	1,523.2 (30.2)	1,561.9 (38.7)
	서울 (증감)	641.2 (-)	650.1 (8.9)	657.5 (7.4)	668.6 (11.1)
	비수도권 (증감)	1,688.3 (-)	1,715.3 (27.0)	1,742.7 (27.4)	1,773.3 (30.6)

자료: 통계청 KOSIS.

- 그러나 최근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7년 55.6만호에서 2008년에 37.1만호로 급감한 이후 2009년 1~10월까지의 기간에는 약 20.2만 호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7년에 6.3만 호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4.8만 호, 2009년 1~10월에는 1.6만 호에 그치고 있음

3) 한은 보도자료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2009년 7월 공보 2009-7-7호)의 내용을 인용.

4) 국토해양부의 신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가구수에 포함.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만호) >

		2005	2006	2007	2008	2009 1~10
전	국	46.4	47.0	55.6	37.1	20.3
	수도권	19.8	17.2	30.3	19.8	11.2
	서울	5.2	4.0	6.3	4.8	1.6
	비수도권	26.6	29.7	25.3	17.4	9.1

자료: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인허가실적 통계.

#### 4. 대응 방안

##### ○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축 부문 경기 침체를 보완해야 할 것임

- 민간 건축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SOC 투자 확대의 결과임
- 따라서 2010년에도 건설업 경기의 침체를 막고 우량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다만 향후 SOC 투자 확대는 친환경 도로 건설 확대, 저탄소 배출 물류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이 '지식 기반 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되어, 경제의 효율성 제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촉진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이 필요함

-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건설사들 스스로의 미분양 주택 해소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공공 부문 수주, 토지 불하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지방 이전 공공 기관이나 기업들의 임직원 주거 수요를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축 경기 침체 리스크가 타 산업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앞으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축 시장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건설사들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건설업이 가지는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업의 리스크가 후방 산업에 확산될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자재 및 기계를 생산하는 후방 산업(철강, 유화, 시멘트, 기계 등)에 대한 업황과 유동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함

○ 미래 수도권 주택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모자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08년 이후 건축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2~3년 뒤 수도권 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 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공공 부문 주택 사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음
- 건축업의 신성장동력화·녹색산업화를 위해 친환경·고에너지효율 건축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함
- 장기적으로 건설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황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축물과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서 녹색 시대에 부합되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함
  - 정부는 이러한 건축업의 신성장동력화·녹색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고에너지효율 건축물 공사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산학연 관련 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구축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별첨 1】 건축업의 산업연관효과

### ○ 생산 유발효과

- 2007년 기준 산업연관표 상의 건축건설업(이하 건축업) 생산유발계수는 1.985를 기록함
  - 생산유발계수 1.985의 의미는 수요 측면에서 건축 부문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1조 원당 경제 전체에 1조 9,850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것임
  - 이는 건설업 내 토목 및 특수건설업 부문(이하 토목업)의 2.116, 제조업의 2.038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비스업의 1.678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임
  
- 특히 건축업은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됨
  - 건축업의 생산유발계수 1.985 가운데 1.003 정도만이 건축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이고, 이를 뺀 0.981이 다른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생산임
  - 건설업 내 토목업의 경우에는 전체 생산유발계수 2.116중 1.000만이 자신의 생산유발효과이며, 타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이보다 큰 1.116을 기록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타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0.342 및 0.341 수준에 그치고 있음

### < 건축업 생산유발계수(2007년, 최종수요 1단위당) >

	건축건설업	토목 및 특수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생산유발계수 (A+B)	1.985	2.116	2.038	1.678	1.862
자체 생산유발계수 (A)	1.003	1.000	1.696	1.336	—
타산업 생산유발계수 (B)	0.981	1.116	0.342	0.341	—

자료: 2007년 산업연관표를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축건설업, 토목 및 특수건설업, 전기·수도·가스, 서비스업, 기타의 7개 산업으로 부문통합하여 자체 계산함.

주: 단 전산업은 한은 보도자료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09년 4월 공보 2009-4-17호) 상 발표된 통계치를 이용함.

○ 부가가치 유발효과

- 2007년 기준 산업연관표 상의 건축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85를 기록함
  -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785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는 수요 측면에서 건축업 부문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1조 원당 경제 전체에 7,850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는 것임
  - 이는 서비스업의 0.869보다는 낮으나 건설업내 토목업의 0.780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제조업의 0.591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특히 건축업은 타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됨
  - 건축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0.785 가운데 0.451 정도만이 건축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이고, 이를 뺀 0.334가 다른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임
  - 건설업 내 토목업의 경우에는 전체 부가가치유발계수 0.780중 0.409가 자신의 부가가치유발효과이며, 타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371을 기록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타산업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0.180 및 0.08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건축업 부가가치유발계수(2007년, 최종수요 1단위당) >

	건축건설업	토목 및 특수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A+B)	0.785	0.780	0.591	0.869	0.746
자체 부가가치유발계수 (A)	0.451	0.409	0.411	0.787	-
타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B)	0.334	0.371	0.180	0.082	-

자료: 2007년 산업연관표를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축건설업, 토목 및 특수건설업, 전기·수도·가스, 서비스업, 기타의 7개 산업으로 부문통합하여 자체 계산함.

주: 단 전산업은 한은 보도자료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09년 4월 공보 2009-4-17호) 상 발표된 통계치를 이용함.

○ 고용 유발효과

- 2007년 기준 산업연관표 부속표중 고용표상의 건축업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당 17.1명을 기록함
  - 취업유발계수 17.1명의 의미는 수요 측면에서 건축업 부문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1조 원당 경제 전체에 1만 7,100명의 취업자가 유발된다는 것임
  - 이는 서비스업의 17.9명보다는 낮으나 건설업내 토목업의 15.0명보다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의 9.6명에 비해서는 크게 높음
  
- 또한 건축업의 타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건축업의 취업유발계수 17.1명 가운데 11.1명이 건축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이고, 이를 뺀 6.0명이 다른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임
  - 건설업 내 토목업의 경우에는 전체 취업유발계수 15.0명중 8.4명이 자신의 취업유발효과이며, 타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는 6.6명을 기록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타산업에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4.5명 및 1.4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건축업 취업유발계수(2007년, 최종수요 10억 원당 명) >

	건축건설업	토목 및 특수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취업유발계수 (A+B)	17.1	15.0	9.6	17.9	13.9
자체 취업유발계수 (A)	11.1	8.4	5.1	16.5	-
타산업 취업유발계수 (B)	6.0	6.6	4.5	1.4	-

자료: 2007년 산업연관표를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축건설업, 토목 및 특수건설업, 전기·수도·가스, 서비스업, 기타의 7개 산업으로 부문통합하여 자체 계산함.

주: 단 전산업은 한은 보도자료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2009년 7월 공보 2009-7-7호) 상 발표된 통계치를 이용함.

**【별첨 2】 건축 경기 침체의 부문별 파급 영향 추산 방법**

○ (경제 성장) 직·간접적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

- 직접적 성장률 감소 효과: 건축업의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는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Delta 3.2\%$  중  $\Delta 0.31\%p$  (기여율로는 실질 GDP 감소분의 12.6%를 차지함)
  - 반면 동종 업종인 토목업은 0.39%p의 성장 플러스 효과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은 총 0.08%p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가짐
-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3%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건축업의 성장기여도가 이를 능가하는  $\Delta 0.41\%p$ 를 기록하였음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기여도(원자료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농림수산·광업	0.15%p	0.17%p	0.01%p
제조업	2.24%p	$\Delta 0.55\%p$	$\Delta 2.74\%p$
전기·수도·가스업	0.13%p	0.07%p	0.14%p
건설업	$\Delta 0.03\%p$	$\Delta 0.27\%p$	0.08%p
건축업	$\Delta 0.04\%p$	$\Delta 0.41\%p$	$\Delta 0.31\%p$
토목업	0.01%p	0.14%p	0.39%p
서비스업	2.06%p	0.63%p	$\Delta 0.01\%p$
경제성장률	4.9%	$\Delta 0.3\%$	$\Delta 3.2\%$

자료: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 주: 1) 산업별 기여도의 합과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정상 순생산물세의 차이때문임
- 2) 건축업은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건물수선을 합한 것임.

- 간접적 성장률 감소 효과: 단순히 보아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Delta 3.2\%$  중  $\Delta 0.23\%p$ 가 건축업의 간접적인 성장 감소효과로 판단됨

- 단 건축업이 타산업 생산으로부터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없는 최종재 산업이라고 가정함
- 건축업의 총부가가치계수는 0.785이며 이중 건축업 자체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51, 건축업이 타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334임
- 이는 건축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건축업 자신의 부가가치와 타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0.451 : 0.334임을 의미함
- 이 비율을 국민계정상의 건축업의 직접적 경제성장 기여도와 간접적인 성장 기여도에 적용하면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Delta 3.2\%$ 중  $\Delta 0.23\%p$ 가 건축업에서 유발되나 건축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간접적인 성장 감소효과로 판단됨  
※ 간접적 성장 감소 효과

$$= \Delta 0.31\%p \times \frac{0.334}{0.451}$$

$$= (\text{건축업 성장 기여도}) \times \frac{\text{타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text{건축업부가가치유발계수}}$$

- 직·간접 성장률 감소효과: 건축업은 2009년 상반기 성장률  $\Delta 3.2\%$ 중  $\Delta 0.54\%p$ 에 대해 직·간접적 기여를 함 (GDP 감소분에 대한 기여율은 16.9%)
- 직접 성장률 감소 효과( $\Delta 0.31\%p$ ) + 간접 성장률 감소 효과( $\Delta 0.23\%p$ )

○ (고용) 직·간접적인 고용 감소 효과

- 직접적 고용 감소 효과: 2009년 상반기중 건축업 내 3만 2,776명의 취업자수 감소 추정
- 2009년 상반기 건축업의 명목 부가가치 감소분 = 1조 3,317억 원
- 2009년 상반기 건축업의 명목 최종수요 감소분 = 1조 3,317억 원  $\times$   $(1/0.451) = 2$ 조 9,528억 원
- 2009년 상반기 건축업의 취업자수 감소분 = 11.1명/10억 원  $\times$  2조 9,528억 원 = 3만 2,776명

- 직·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 2009년 상반기 건축업 침체로 유발된 경제 전체의 취업자수 감소분은 연인원 5만 493명에 해당됨
  - 2009년 상반기 건축업 최종수요 감소의 총 취업자수 감소 = 17.1명/10억 원 × 2조 9,528억 원 = 5만 493명
- 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 2009년 상반기 건축업 침체로 유발된 경제 전체의 취업자수 감소분은 연인원 1만 7,717명에 해당됨
  - 2009년 상반기 건축업 최종수요 감소로부터 유발된 타 산업 취업자수 감소 = 5만 493명 - 3만 2,776명 = 1만 7,717명

### 【별첨 3】 주요 산업연관계수표

#### □ 국산투입계수표

	농림수산	광산품	제조업	전력·수도·가스	건축	토목·특수건설	서비스	기타
농림수산	0.0510	0.0012	0.0192	0.0000	0.0018	0.0031	0.0047	0.0210
광산품	0.0000	0.0000	0.0024	0.0029	0.0003	0.0036	0.0000	0.0002
제조업	0.2649	0.1682	0.3858	0.0769	0.3635	0.4286	0.0947	0.2063
전력·수도·가스	0.0062	0.0254	0.0138	0.1498	0.0025	0.0020	0.0161	0.0009
건축	0.0007	0.0013	0.0004	0.0109	0.0002	0.0001	0.0095	0.0000
토목·특수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서비스	0.0677	0.1689	0.1013	0.0548	0.1285	0.1182	0.2066	0.6766
기타	0.0145	0.0369	0.0083	0.0045	0.0078	0.0110	0.0334	0.0000

□ 국산생산유발계수표

	농림수산	광산품	제조업	전력·수도·가스	건축	토목·특수건설	서비스	기타
농림수산	1.0653	0.0110	0.0360	0.0045	0.0169	0.0207	0.0125	0.0383
광산품	0.0013	1.0010	0.0041	0.0038	0.0020	0.0055	0.0007	0.0016
제조업	0.5001	0.3508	1.6960	0.1812	0.6529	0.7642	0.2388	0.5222
전력·수도·가스	0.0193	0.0415	0.0326	1.1816	0.0189	0.0204	0.0294	0.0281
건축	0.0028	0.0048	0.0033	0.0141	1.0032	0.0033	0.0131	0.0096
토목·특수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0000
서비스	0.1787	0.3055	0.2429	0.1175	0.2683	0.2746	1.3364	0.9582
기타	0.0257	0.0504	0.0230	0.0110	0.0225	0.0271	0.0470	1.0371

□ 부가가치유발계수표

	농림수산	광산품	제조업	전력·수도·가스	건축	토목·특수건설	서비스	기타
농림수산	0.6076	0.0063	0.0205	0.0026	0.0097	0.0118	0.0071	0.0218
광산품	0.0007	0.5921	0.0024	0.0023	0.0012	0.0032	0.0004	0.0009
제조업	0.1213	0.0851	0.4115	0.0440	0.1584	0.1854	0.0579	0.1267
전력·수도·가스	0.0072	0.0155	0.0122	0.4405	0.0070	0.0076	0.0110	0.0105
건축	0.0013	0.0021	0.0015	0.0063	0.4511	0.0015	0.0059	0.0043
토목·특수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4088	0.0000	0.0000
서비스	0.1052	0.1798	0.1430	0.0692	0.1579	0.1616	0.7867	0.5641
기타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369-4030)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up>P</sup>	2009 <sup>E</sup>	2010 <sup>E</sup>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8	4.6	4.0	5.2	5.1	2.2	-1.0	3.9	
	최종소비지출 (%)	0.5	1.0	4.6	5.1	5.1	1.6	0.7	3.1	
	민간소비 (%)	-0.4	0.3	4.6	4.7	5.1	0.9	-0.5	2.9	
	총고정자본형성 (%)	4.4	2.1	1.9	3.4	4.2	-1.7	-2.7	4.3	
	건설투자 (%)	8.5	1.3	-0.4	0.5	1.4	-2.1	3.0	3.2	
	설비투자 (%)	-1.5	3.8	5.3	8.2	9.3	-2.0	-12.0	7.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119	282	150	54	59	-64	343	16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50	294	232	161	146	-133	332.6	226
		수출 (억 \$)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3,574.8	3,935.9
		증감률 (%)	(19.3)	(31.0)	(12.0)	(14.4)	(14.1)	(13.6)	(-15.3)	(10.1)
		수입 (억 \$)	1,788	2,245	2,612	3,094	3,568	4,353	3,242.2	3,709.9
		증감률 (%)	(17.6)	(25.5)	(16.4)	(18.4)	(15.3)	(22.0)	(-25.5)	(16.0)
소비자물가 상승률 (%)	3.5	3.6	2.8	2.2	2.5	4.7	2.7	3.0		
실업률 (%)	3.6	3.7	3.7	3.5	3.2	3.2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26.8	33.6	49.4	61.6	68.4	94.3	60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92	1,145	1,024	956	929	1,103	1,280	1,15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